

큰 병 치료, 서울 안가도 된다

광주·전남 병원 상당수 '주요 질환 수술' 전국 상위권

임상 경험 수도권 병원에 뒤지지 않아

광주·전남지역 병원들의 주요 질병에 대한 수술 경험이 수도권 대형 병원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돼 '큰 병(大病)은 서울로'라는 지역민들의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공개한 '2006년 주요 30대 질환 의료기관 수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학병원이 관상동맥 확장·절제술(심장) 수술 2위를 포함해 5개 질환에서 5위권에 진입했고, 여수에 양병원도 무릎관절 수술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병원들 다수가 상위권에 포함됐다.

전남대학병원의 주요 질환별 수술건수를 보면 관상동맥 확장·절제 수술 161건을 시술해 2위를 기록했고, 심장 스텐트 삽입술은 922건으로 4위였다. 또 화순전남대학원은 엉덩이관절 수술 245건(2위) ▲일반 뇌수술 24건

(4위) ▲뇌종양 수술 174건(5위)을 시술하는 등 화순전남대·전남대학원을 합쳐 19개 분야의 수술건수가 30위권 내에 진입했다.

전남대학원은 별도의 심장센터를 두고 관상동맥질환, 심장관막질환을 비롯 부정맥, 선천성 심장병 환자를 위한 질환별 전문 진료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분원인 화순전남대학원은 암센터, 치매·퇴행성뇌질환센터, 관절센터 등 전문 진료센터 운영으로 수술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병원도 일반 척추수술 분야에서 544건을 시술, 30위권에 올랐다. 이 밖에 중·소형병원 중에서는 여수에 양병원이 무릎관절 수술 1천437건 시술해 주요 대형병원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광주새우리병 원 일반 척추수술 1천734건(4위) ▲광주병원 심장 관상동맥 확장·절제

■ 주요 질환 수술 전국 30위 내 광주·전남 병원

심장관상동맥 확장 및 절제술	전남대학원(2위) 광주병원(11위)
심장스텐트 삽입술	전남대학원(4위) 화순전남대학원(2위) 광주기독병원(23위) 여천전남병원(30위)
갑상선	화순전남대학원(2위)
고관절(엉덩이)	여수에양병원(1위) 화순전남대학원(28위)
슬관절(무릎)	화순전남대학원(4·5위)
뇌기저부 뇌종양	화순전남대학원(7위)
위 절제술	화순전남대학원(8위)
간 부분 절제술	광주새우리병원(4위) 광주우리병원(19위)
일반 척추	

수술 77건(11위) ▲광주기독교병원 내시경적 담도수술 259건(15위) ▲목포한곡병원 내시경적 척추수술 59건(18위) ▲순천성가톨릭병원 정맥류 결찰수술 136건(27위)을 기록했다.

이들 중·소형병원들은 특정 수술을 전문화시켜 전국 주요 대학병원보다도 많은 수술건수를 기록했다. 진료비 또한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일수록 1인당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았

으며 전문병원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일부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수술을 조작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료기술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수술을 많이 한 병원일수록 임상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건보공단은 병원을 선택할 때 수술 실적과 함께 ▲의료진의 연구 업적 ▲환자 사후관리 ▲비보험 진료 강요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남대학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의료인들 중에는 각 분야에서 수도권 대형병원의 의료진보다도 의료기술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며 "큰 질환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간다면 진료비용과 서비스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해경, 실종자 수색 26일 여수해경이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이스턴 브라이트호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여수, 침몰 선박 추정 물체 발견

실종자 수색 성과 없어

지난 25일 새벽 여수시 삼산면 백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이스턴 브라이트호' 선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26일 사고 해역 해저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실종선원 1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군경 합동 수색팀은 이날 사고 해역인 백도 북동쪽 13km 해저에 이스턴 브라이트호로 추정되는 선박을 발견했다. 해군 수색팀이 발견한 물체는 길이 80m의 배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뱃머리가 대만 쪽을 향하고 있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안산 성인오락실 불...5명 사망

26일 오후 5시20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층짜리 상가건물 3층의 성인오락실에서 불이 나 이모(26)씨 등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 난 성인오락실은 불법 영업중이었으며, 출입문 오픈 과정에서 불

/연합뉴스

나원침 (7394) 김중두



다들 물어봐... 신발재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수, 도림, 대림
KCC함포, 시스텔함포 생산·시공
▶ 02-06214-3002 ▶ 02-06214-3003
(주)본드나리 KCC슬리본, 매인도, 대림
실리콘, 방수재, 합착재, 타이브
▶ 02-06214-3002 ▶ 02-06214-3003

유동근 '왕과 나' 제작진 폭행



○...중견탤런트 유동근(사진)이 자신의 아내 전인화가 출연 중인 SBS TV드라마 '왕과 나'의 책임 프로듀서와 조연출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

○...26일 '왕과 나'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경기도 탄현 제작센터를 찾은 유씨가 대문이 늦게 나오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다 이를 말리던 김도 책임프로듀서와 이모 조연출을 폭행했다는 것.

○...제작진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유씨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10여 일이 지나도록 대담이 없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

■ 광주·전남 환자들 수도권 선호 심각

年 28만여명·3천억원 유출

광주·전남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높다.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초대형화·고급화되면서 의료 인력의 중앙 집중도 심화돼 지역민들이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해동안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은 광주·전남지역 환자는 28만4천872명, 이에 따른 진료비는 1천619억원이었다.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면 불과 2년 전인 2003년의 1천314억원보다 23.2%나 늘어난

것이다.

광주·전남 주민들의 수도권 진료비 총액은 대구·경북의 1천641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대구·경북의 인구(약 520만명)가 광주·전남(약 340만명)보다 180만명이나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이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셈이다.

아울러 수도권 진료시 환자 및 보호자의 체류비와 비보험 진료료 포함하면 광주·전남지역의 연간 진료비 유출액은 3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지역 의료계 추정이다.

2005년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은

광주·전남지역 환자는 2003년의 26만3천438명에 비해 8.1% 늘었다. 환자수 증가에 비해 진료비 유출액 증가율이 배 이상 높은 것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진료비가 많이 드는 암환자 등 중환자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암 치료를 받은 광주·전남 환자 수(2005년 기준)는 1만4천385명으로 전체 수도권 진료자의 5%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쓴 진료비는 414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5.6%에 달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2세 미만 감기약 임의사용 제한

용량 의사와 상담해야

앞으로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해열진통제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2세 미만 아동에게 감기약을 사용할 때에도 의사와 상담을 통해 용량을 결정하도록 감기약의 용법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 감기약의 용

법·용량 안내문에서 1세 미만 또는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약품표준제제기준' 개정안을 입안에 고쳤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이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비염용 먹는 약 등의 용법·용량 항목의 표준문안에서 1세 미만 또는 2세 미만 아동의 용법·용량을 삭제한 것은 지난 10월 미국 식품의약품

(FDA)이 소아에서 감기약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오승윤 화백 그림 위조범 징역 8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태병 부장판사는 26일 고 오승윤 화백의 그림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45·인쇄소 직원)씨와 유모(44·골동품상)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유씨와 함께 2006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산과 마을', '풍수', '산'과 같은 위작 18점을 만든 뒤 1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 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상담 (062) 233-5119
광주 신안로 100번 4층 409호 3층
02년 4월 19일 개원

광주광역시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협약

1.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광주시민으로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각자 가진 자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협약의 범위

본 협약은 광주시민으로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각자 가진 자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협약의 내용

본 협약은 광주시민으로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각자 가진 자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주광역시출산·양육지원센터, 광주시출산·양육지원센터, 광주시출산·양육지원센터, 광주시출산·양육지원센터

광주광역시출산·양육지원센터, 광주시출산·양육지원센터, 광주시출산·양육지원센터, 광주시출산·양육지원센터